논·밭 하우스서 '청정미나리' 재배…농가 고소득

도농기원, 장성 황룡강변 8.8ha '이모작' 재배법 개발

'벼-미나리' '수박-미나리' 잇단 수확…소득도 4배 이상

전남도농업기술원이 관행적인 미나리 재배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새 재배법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미나리 재배면적이 매우 줄어든 상황에서 습지가 아닌 논이나 밭에 비가림 시설을 활용, 이모작 재배하는 방법이어서 부족한 재배면적 확보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밤에는 물을 대주고 낮에는 물을 빼주는 이른바 논밭 절충형 재배법으로 관리가 쉽고 줄기속이 꽉 찬 미나리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이 재배법은 일반적으로 미나리는 한 곳에서 연중 재배, 수확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모작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박과 미나리, 조생종 벼와 미나리 등을 연달아 심는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장성 황룡강변에서 14농가, 8.8ha의 단지를 조성했다. 구체적으로 5월께 조생종 벼를 심고 수확한 뒤 9월부터 미나리 재배에 들어가고 또 다른 방법은 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 수박을 심어 출하하고 8월에는 다시 미나리를 심는 식이다.

벼와 수박을 재배하는 7~8월에는 미나리 잎과 줄기가 뻣뻣하고 거칠어 거의 판로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모작에 들어간 미나리는 10월 중·하순부터 수확에 들어가 다시 벼와 수박을 심을 때까지 최소 2~3차례 재배할 수 있다.

전남도가 소득을 분석한 결과 농가당 최소 1400만원에 달해 벼농사보다 4.2배 많았다.

도 농기원은 또 판매방법도 공판장 중심으로 출하했던 것을 현장 판매 형태로 개선해 소비자가 직접 미나리 수확 체험과 함께 현장에서 요리해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전남지역 미나리 재배면적은 357ha이다. 전국(1558ha)의 22.9%를 차지하는 주산지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물이 깨끗하고 풍부한 황룡강의 특성을 활용, 이 일대에 새 미나리 단지를 만드는 등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나주 배 농가, 영주 사과 생산단지 견학

'공동마케팅 워크숍' 갖고 품평회도

영·호남 상생발전 협력사업인 '나주배·영주사과 공동 마케팅'에 참가하고 있는 나주배 생산농가들이 경북 영주시를 방문해 영주농산물유통센터(APC)와 영주사과 생산농가를 견학했다.

나주시는 9일 "나주배연구회를 주축으로 한 나주배 생산농민 30여명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 영주시 소재 한국 선비문화수련원에서 '나주배·영주사과 공동마케팅 생산농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나주배·영주사과 공동 마케팅에 대한 업무를 공유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토대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나주배 농민들은 영주사과를 선별 출하하는 영주농산물유통센터와 영주사과 생산농가 덕고개작목반을 견학하고 영주사과발전연구회 임원들과 만나 나주배·영주사과 품평회도 가졌다.

현장 견학을 마친 농가들은 세종대 유통학과 김성수 교수를 초청, '과수시장의 변화와 과수 농업인의 대응방안'에 대해 강의를 듣기도 했다.

나주배와 영주사과 공동마케팅 사업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2013년 창조지역사업'에 선정돼 2013년부터 2년간 추진된다.

나주배·영주사과 혼합세트 상품인 '홍동백서', '예사랑', '하나로세트', '아침에 영주사과&저녁에는 나주배' 등은 지금까지 596t이 팔려 42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강진만 겨울진객 고니 짙은 안개가 끼고 다소 포근한 날씨를 보인 지난 9일 청정해역 강진만을 찾은 겨울 진객 큰 고니(천연기념물 제 201호)떼가 썰물로 바닷물이 빠진 뻘밭에 머리를 넣어 먹잇감을 찾고 있다. 현재 강진만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온 큰 고니 1000여 마리 외에도 큰 기러기, 오리류 등 다양한 겨울철새들이 날아들어 월동중이다. 〈강진군 제공〉

'강진사랑상품권' 판매 1년새 25억 넘어섰다

강진군이 강진사랑상품권(이하 강진상품권) 발행 1년 만에 판매 25억원을 돌파했다.

강진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와 상권보호를 위해 지난해 말 5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 등 3종〈사진〉으로 발행됐다.

군은 9일 "강진상품권으로 구입하면 3%를 할인받기 때문에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상품권 수요가 점점 늘어나 단기간에 판매액이 25억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상품권 판매량이 늘자 가맹하는 점포도 덩달아 증가해 현재 510여 곳에 이르고 있다. 마트, 편의점, 식당, 주유소, 농자재판매소, 의료원, 자동차 수리점, 장례식장 등 다양한 업종들이 가입하면서 상품권 사용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도 갖춰졌다.

가맹점포의 환급 수수료가 1%에 불과해 카드 수수료 2~4%보다 낮은 것도 강진상품권의 인기 비결로 꼽히고 있다.

지역 기관단체나 기업들이 상품권 구입에 나서고, 군도 각종 수당과 시상금 등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물론 매달 1차례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정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펼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사랑상품권이 지역화폐로 자리매김돼가고 있어 지역경제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환경부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공모

담양군, 호남권 대상 도시 선정

담양군은 환경부가 추진중인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공모에서 호남권 대상도시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길을 주축으로 8.4㎢의 부지에서 2024년까지 신규사업비 500억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저탄소분야, 친환경 도시분야,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지속가능한 고용분야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군은 환경부에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지속 가능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전북

순창 '작은영화관' 건립 순조

부지매입 완료…내년 4월 본격 공사

순창군이 추진중인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이 지난 10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4월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착수한다.

9일 군에 따르면 영화관 부지로 최근 순창읍내 중심가에 유휴토지로 있던 (구)삼양정미소 부지를 매입함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변경 절차와 건축설계가 진행중이다.

영화관 건립을 위해 군은 지난해 안전행정부로부터 10억원의 특별교부세에 이어 3억원의 도비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로써 국도비 22억원 군비 24억원, 민자 1억원 등 총 47억을 들여 추진하게 될 영화관 건립을 위해 관련 행정절차도 마무리한 상태다.

순창읍 남계리 4732㎡ 부지에 건축연면적 1026㎡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영화관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함께 추진하는 복합건물로 건립될 예정이다.

1층에는 50석 규모 2개소의 상영관을 갖춘 작은영화관이, 2층에는 동아리실, 댄스연습실, 악기연주실 등을 갖춘 청소년 문화의집이 들어선다.

또 부지 내 기존 양곡창고중 일부는 철거하지 않고 내부공간을 리모델링해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역사성도 간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지선정이 가장 시급했었는데 이번에 도심 내에 영화관 부지로 확보함에 따라 이곳 주변을 공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GM "2015년말까지 유럽서 쉐보레 브랜드 철수"

군산시, 생산량 감소 대책 마련 나서

GM이 2015년말까지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겠다고 밝히자 한국GM 공장이 있는 군산시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GM은 지난 5일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의 철수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전체 생산 대수의 20% 가량(18만대)에 달하는 일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쉐보레 크루즈와 말리부 차량 가운데 유럽 수출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35~40%를 차지한다.

군산공장은 2011년 차량 27만대를 생산해 5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유럽 경기 침체로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수출까지 중단될 처지에 놓이자 군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산시는 9일 "한국GM 군산공장은 단순한 공장이 아닌 군산의 향토기업임으로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향후 상황을 면밀히 살펴 공동의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군산공장 노조 등과 함께 각종 대책을 논의 중이며 노조도 지난 6일 위기 극복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 GM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다보니 군산공장의 매각, 구조조정, 철수 등 각종 루머가 나돌고 있다"면서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노사과 함께 위기 극복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유럽 독립국가연합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등 군산공장의 장기 운영계획을 마련 중이다"고 덧붙였다.

GM 경영진은 앞서 지난 3월 글로벌 소형차 생산기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내수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연간 차량 20여만대를 생산하는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협력사에는 1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해 군산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공동브랜드 '춘향애인'·통합마케팅 시너지 효과

남원 농산물 소비자 호평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과 농산물 통합마케팅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면서 남원 농산물의 르네상스를 이끌고 있다. 그동안 남원농산물은 50여개의 브랜드가 난립해 인지도가 낮은데다, 유통시장에서 품질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원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소비자 인지도와 남원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을 개발했다.

올 한 해 동안 집중적인 홍보 결과 소비자들로 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춘향애인은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아 파프리카, 멜론, 포도, 배 등 951t을 일본·대만·캐나다 등에 수출해 3578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특히 시는 지난 3월 5개 농협이 참여한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 통합마케팅을 펼쳐 지난 3일까지 582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법인 출범으로 인해 연인원 2만3797명을 고용하면서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신들린 난타공연 지난 6일 (사)고창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고창 문화의전당에서 개최한 페스티벌에서 동호회원들이 난타공연을 하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5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아마추어 동호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창립됐으며 전통, 공예, 음악, 무용, 사진, 미술, 문학, 연극 등 8개 분과에 49개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단신

남원 건축인허가 올들어 766건

남원시는 9일 "올 들어 지난 11월 말까지 건축인허가는 총 766건에 달해 전년도 같은 기간의 659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건축허가는 163건(전년 대비 10건 증가), 건축신고는 603건(전년 대비 97건 증가)으로 소규모 주택 등 건축신고 비율이 높았다. 이와 관련 시는 복합민원팀 운영에 따른 신속하고 친절한 건축행정 서비스, 농촌주택개량 지원 물량(145동) 확대, 귀농·귀촌하는 주택 수요 증가 등을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주택 신청인의 20% 이상이 서울 등 도시민들로 파악됐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육군 35사단 송천동 시대 마감…임실로 이전

전북 향토사단인 육군 35사단이 58년간의 전주시 송천동 시대를 마감하고 9일 임실로 이전을 시작했다. 부대는 연내에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일대(735만㎡)로 이전을 완료할 방침이다.

35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사단사령부와 직할대 장병과 군인가족 2000여명과 장비 3000여t의 이동을 시작했다. 부대이전 사업은 전주시가 부지를 양도받는 대신 임실에 병영시설, 주거·복지시설 232동, 교육훈련장 등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부대 이전은 2008년부터 시설공사를 시작해 22년 만에 마무리된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 독거노인 3세대에 연탄 900장 전달

정읍시와 정읍시자원봉사센터는 9일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센터 이사, 자원봉사단체장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독거노인 3세대에 사랑의 연탄 900장을 전달했다.

이날 연탄이 전달된 가정은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에 위치해 있어 참가자들은 손수레와 릴레이방식으로 직접 배달했다. 연탄은 매년 저소득층에게 연탄을 지원하고 있는 정읍시자원 봉사센터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한편 정읍시는 본청 각 부서와 읍면동 자체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주 소각자원센터 폐열 판매 민간업체 모집

전주시는 9일 "소각자원센터의 폐열을 판매하기 위해 민간투자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소각장에서 연간 36만t의 폐열을 생산, 자체 사용하고 남는 대부분을 전력거래소에 연간 19억원에 팔고 있지만, 수익을 늘리고자 이 폐열을 민간 업체에 판매하기로 했다.

증기로 판매하면 현재보다 연간 17억원 이상의 수입을 추가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선정된 민간업체는 폐열 공급을 위한 관로를 매설(8㎞)하고 도로를 개설한 뒤 10년간 판매권을 가진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